



정읍시, '시민 공감' 친절교육 26회 실시

정읍시가 시민 공감을 중심에 둔 열린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26회에 걸친 공무원 대상 친절 교육을 진행하며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섰다.

시는 시민의 행정 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운데, 보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시청 공무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총 26회의 친절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응대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민원인과의 소통·공감 방법, 친절·불친절 사례 공유,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구성돼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직 태도 함양에 중점을 뒀다.

특히 다양한 민원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응대 교육은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노암동, 신청사 내 '나눔의 빛' 설치·운영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가 지역 내 나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신청사 내에 '노암동 나눔의 빛'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나눔의 빛은 기부를 통해 노암동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준 이들에게 의미를 담았으며, 전담에는 후원금을 기탁한 수 시기부자, 착한가게, 소액으로 나눔을 이어오는 1인1계좌 기부자들의 상호명과 이름이 새겨져 있고, 노암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업소나 개인은 노암동 맞춤형복지팀(620-47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롯데리아 남원점, 학교 밖 청소년에 햄버거 후원

남원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지난 22일, 롯데리아 남원점(대표 주정철)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햄버거 한 햄버거' 100개(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햄버거 한 햄버거'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정기적인 후원으로 청소년의 급식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다.

주정철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작은 위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을 시작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꿈부모회, 남원 아영면서 국수나눔 행사

남원시 아영면 관계자는 관내 아꿈부모회(아이들 꿈을 지지하는 부모회, 회장 윤석우)는 23일 지난하에 이어 올해에도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앞에서 국수나눔 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아꿈부모회는 아영면에 거주하는 아꿈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행복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날 잔치는 11년 전 원불교 청계교당이 아영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민과 함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누어 먹자는 취지에서 시작, 현재는 아영면 부모회에서 이어받아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가무형유산 소장자료 기증식’ 개최

단청 도구·악기·악보·나전 도안 등 다양한 무형유산 작고보유자들 자료 1004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지난 22일 ‘국가무형유산 소장자료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기증된 자료는 고(故) 홍점석 단청장 보유자, 고(故) 이철호 구례향제출품류 보유자, 고(故) 심부길 나전장 보유자, 고(故) 김수와 진주검무 보유자의 소장자료 등 총 459건(1,004점)이다.

고(故) 홍점석 단청장 보유자는 20세에 서울 성북구 개운사에서 김한수(월주 원덕문 스님)의 단청 현장을 접하고 단청에 입문했다. 단청 가운데 불화·벽화·별화 등에 능통했으며, 한국 단청의 보존과 진흥에 매진해 2011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홍점석 보유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단청 도구와 작업복 보유자 인정서, 단청 작품 등으로, 단청 분야에 족적을 남긴 보유자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고(故) 이철호 구례향제출품류 보유자는 중학교 시절 단소를 처음 접하고 추산 전용선과 백경 김무규에게 단소를 배웠다. 본인이 연주하는 단소를 직접 제작까지 하며 구례향제출품류의 풍류정신과 맥을 이었고, 1996년에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악기 제작도구와 공연용 복식, 악보 등이며, 구례향제출품류의 음악문화와 전승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고(故) 심부길 나전장 보유자는 1916년 수곡 전성규의 문하에 나전칠기에 입문했다. 특히 굽음질에 능했으며, 한국 나전의 보존과 진흥에 매진해 1975년 굽음질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나전 작업



에 사용되었던 도구들과 나전 도안들이며, 나전장 분야 의 대가로서 그의 삶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고(故) 김수와(본명 김수녀) 진주검무 보유자는 9세에 진주관변에 들어가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특히 검무와 장고에 능했다. 진주검무 전승과 진흥을 위해 매진해 1967년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김수와 보유자가 생전에 입었던 의상과 검무칼, 팬과 리, 소리북, 가야금 등으로, 진주검무의 문화와 명맥을 살펴볼 수 있다.

전송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무형유산의 발전과 전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걸은 길을 보여주는 기증 자료들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와 자료집 발간, 국공립박물관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소개되고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교육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전북 지역 300명상 미만 의료기관 및 위탁 협약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을 포함해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약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방식 △위탁 지원사업 현황 △협약 절차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학적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자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은 권역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래, 도내 위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임종 과정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관광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관광연합회장 이·취임식 23일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오광석 의장, 윤정훈 도의원, 덕유산국립공원 안길진 소장, 무주군체육회 송재호 회장, 최태호 노인회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크텔에서 개최했다.

제11대 양춘모 회장은 이임사에서 "아무 탈없이 임기를 마무리한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살리기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12대 박우을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의 구천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진한 사랑을 받받아 누가 되지 않도록 구천동의 권리와 지분을 찾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구천동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관광객이 꼭 다시 찾을 수 있는 구천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안겠다"고 덧붙였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에서 "구천동 발전에 헌신한 전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우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무주군에 성금 1000만원 기탁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윤정순 여자 회장(무주군 의용소방대장 겸임)과 공은태 남자 회장이 23일 무주군을 찾아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두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들을 대표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말하며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8,220명이 1인당 5천 원씩 모금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돕는 데 요긴하게 쓰일지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도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은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복구 지원을 하고 각종 행사 시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는 전주시 모악산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보건소, '춘향사랑 힐링 걷기' 5월3일 개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제95회 춘향제에서 춘향제를 찾은 남원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남원 시내를 걷는 '춘향 사랑 가족 힐링 걷기' 행사를 오는 5월 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참가자 현장 집수를 진행하며 간단한 준비 운동을 마친 후 사랑의 광장에서 출발해 동림교, 남원대교, 춘향교를 잇는 약 3km 구간으로, 남원 시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행사 후에는 완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춘향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걷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개공, 대강면 사석마을에서 1사1촌 봉사활동

전북개발공사는 23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남원시 대강면 사석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 4월 15일에 취임한 김대근 신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함께하였으며, 화단 꽃심기 및 쓰레기 수거 등 마을 환경 정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개발공사는 2007년부터 도내 소외지역과 자매결연하여 매년 봄·가을 영농기 일손돕기, 마을 필요물품 지원 등을 통해 농촌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석마을과는 올해 새로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석마을 김갑천·지영화 이장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오상근 기자



성림고속관광·무주행복운수협, 장학금 기탁

(유)성림고속관광과 무주행복운수협등조합은 23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각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무주행복운수협등조합 송봉헌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무주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건강한 꿈을 꾸며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성림고속관광 송국현 이사는 "공부하기 좋고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배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유)성림고속관광은 2021년과 2023년에도 각 1백만 원씩 장학사업에 뜻을 보태고 있으며, 무주행복운수협등조합도 2023년에 장학금 기탁에 동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금단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개최

김제 금단농협(조합장 최승은)은 지난 22일 생활비를 교육 위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금단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하는 행사로 생활 속 법률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운 법률에 대해 전문가가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고 상담해 주는 법률에 대해서 배우고 지원 영농생활에 서로의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 행사에는 금단농협 농가주부모임 강호례 회장을 비롯한 여성조합원 60여명이 참여하여 평소 궁금했지만 찾아가 상담하기 힘든 법률에 대해서 배우고 지원 영농생활에 서로 얼굴보고 웃으며 노래하는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주어 감사하고 선물 같은 하루였다며 감사를 전하였다.

최승은 조합장은 영농철의 시작으로 바쁜신 외중에 참석해 주신 농가주부모임 여성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제=박노태 기자